

인간과 문명의 고향, 숲과 나무

《숲과 한국문화》 펴낸 전영우씨



프랑스 낭만주의 문학을 이끈 샤토브리앙은 “문명 앞에는 숲이 있고, 문명 뒤에는 사막이 남는다”는 말로 숲과 문명, 인간의 관계를 갈파했다. 문명, 혹은 인간의 삶이 숲을 딛고 이어졌고, 그 쇠망과 함께 스러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면 문명의 발상지 나일·인더스·황하가 어떤 모습으로 남았는지 떠올려 보라. 전영우 교수(49, 국민대 산림자원학과)는 숲의 가치를 진작부터 이야기해온 ‘숲지킴이’. 《숲과 한국문화》(수문출판사)는 특히 우리 문화 속의 숲을 산책한다.

“숲에 대해서는 낭만적인 찬사나 일방적인 폄하만 해왔습니다. ‘일편 사랑하게 된다’는 생각으로 숲의 여러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숲은 국토의 얼굴이자 민족정서의 근원, 나아가 문명발달의 공로자이며,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이다. 그는 숲이 민족정서의 근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래와 그림을 살살이 뒤졌다. 서민의 생활감이 잘 드러나는 민요 9천여곡을 조사한 결과 2천5백여곡에 나무가 등장해 우리 삶 가까이 나무가 있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국토개발이 강조되던 70년대부터 사라지기 시작해 90년대 대중가요에서는 나무를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동량·대들보 등의 말에서도 나무가 인간과 자연을 매개했던 흔



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명 뒤에서 나무가 했던 역할은 또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 숲에 무성했던 산벚나무·돌베나무·자작나무가 아니었다면 헤인사의 팔만대장경은 판각되지 못했을 것이며, 약도 병도 됐던 옷나무가 없었더라면 썩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오지 못했을 것이다.

세계적인 청자와 백자도 가마를 덮힌 나무가 없었다면 생산하지 못했으리라. 역사를 유지시켜온 종이의 원료는 또 무엇인가. 숲이 풍요로워야 문화가 이름드러오 자란다.

“문명은 숲에 의해 지탱됩니다. 일제의 가혹한 수탈, 한국전쟁 등으로 황폐해진 숲을 30여년만에 복원하는 일을 해냈지만 이제 보존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숲은 1년에 4%만 소비하면 결코 줄어들지 않는 지상에서 유일하게 재생 가능한 자원이다. ‘흑림(schwartzwald)’을 가꾼 독일인들은 2백년 전부터 산림을, 시간차를 두고 돌아가며 이용함으로써 남벌을 막았다.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델인데, 우리나라에는 3백 수십년 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다.

“백성들은 자치적으로 송계(松契)를 구성했고, 정부는 백자 생산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군에 6개면을 돌아가며 산림을 채취하는

분원시정절수처를 지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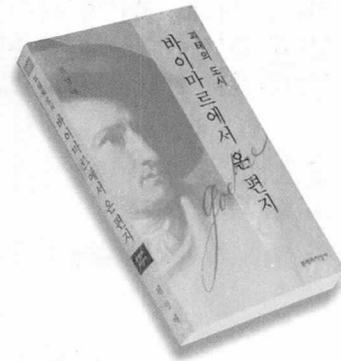
숲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8년 전부터 운영해온 ‘숲과 문화 연구회’가 자리를 잡아가는 요즘, 전교수는 자작나무와 우리 민족의 관계를 따지는 데 골몰하고 있다.

북방에 많이 나는 자작나무가 기마민족으로서의 뿌리와 연관이 있으리라는 것. 그래서인지 서가에는 《금관의 비밀》, 《한국문화의 뿌리를 찾아》 같은, 전공과 무관한 책이 그득하다.

— 이현주 기자

서른통 편지로 놓은 두 문화의 다리

《바이마르에서 온 편지》 펴낸 전영애씨



바이마르는 어디인가? ‘괴테의 도시, 독일 고전주의의 도시 바이마르는 괴테 시절에 주민이 6천명 남짓한 소공국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만한 작은 도시’다. 그렇다면 왜 바이마르인가? ‘괴테, 실러, 헤르더, 빌란트(...), 루터, 바흐, 리스트, 멘델스존, 쇼펜하우어, 니체, 히틀러, 토마스 만’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명사치고 바이마르의 문손잡이를 잡고 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지경’이기 때문이다.

독문학자인 전영애 교수(48, 서울대 독문학과)는 1996년 겨울 두달 동안 작으면서도 큰 도시 바이마르에서 머물렀다. 바이마르가 동양에서 온 한 독문학자에게도 보여준 ‘정신’은 체류기간 동안 괴테독회 회원들에게 보낸 서른통의 편지로 남아 이렇게 책으로 묶였다.

“딱히 책을 내려고 쓴 게 아닙니다. 늘 글을 쓰는 편이라 보고서 대신 한두 통 쓰셨다면 편지가 길어진 것이죠. 글이란 뭐랄까, 삶의 지렛대와 비슷해요. 힘들면 힘들수록 글을 쓰게 되고 더 많은 힘을 얻죠.”

바이마르에서 그는 혼자서 도서관에 다니고 괴테의 집을 들여다보고 우연히 만난 시인에게서 카프카도 바이마르를 다녀갔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가 쓴 1912년 7월의 일기를 들춰본다. 동구영화의 한 장면처럼 웬지 쓸쓸하게만 느껴지는 그의 행로는 꼭 첫번째 편지의 서두에 등장하는 쇠빙산을 닮았다. “그 배 뒤에서는 깨어진 바다가 다시 얼어붙어, 아무도 나의 자취를 짐작할 수 없는 곳으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씩 했었지요”

“제일 인상적인 것은 제가 머물렀던 방입니다. 공교롭게도 처음 한달은 괴테가 정원을 설계한 성에서, 다음 한달은 니체가 죽은 방에서 살게 됐죠. 또 에센에서 내 시의 낭독회를 가졌던 일, 딸 세인리와 이탈리아에 다녀온 일이

기억납니다.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과는 비교도 안되지만 말이죠.”

이런 행로의 사이사이에 바이마르라는 공간이 독일의 정신에 남긴 유산이 무엇인가를 이 책은 잘 보여준다. 모든 요소를 자신 안에 포용했던 괴테의 개방성을 닮은 그의 편지글은 괴테하우스에 대한 세밀한 소개와 괴테·하이너 뮐러의 시, 카프카의 산문 등을 자유자재로 넘나든다.

“괴테라는 정신 속에서 가장 비천한 것과 가장 고귀한 것 등 양 극단이 유기적으로 만납니다. 세계시민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대단한 보편성, 개방성. 왜 괴테냐면 언제라도 새롭게 해석되기 때문이죠.”

공교롭게도 괴테의 기일에 즈음해서 이 책이 발간됐긴 했지만 오히려 괴테 탄생 250주년인 되는 올 8월이 기대된다. 8월이면 괴테전집 중 하나로 지금 그가 거의 번역을 마친 시전집과 괴테의 전기 《시와 진실》이 발간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이마르와 올 8월 출간될 괴테전집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책의 의미는 무엇일까?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와 문학에, 낯선 문화에, 또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혹시나 조그만 다리가 되지 않을까요 생각합니다.”

— 김연수 기자



풍수가 권력에 끼친 영향

《역사를 움직인 풍수이야기》 펴낸 정종수씨

옛날이나 지금이나 풍수에 따라 묘를 가꾸는 풍습은 다를 것이 없다. 조상의 묘에서 자손의 길흉화복이 정해진다는 믿음 때문이다. 특히 권력을 쥔 자일수록 묘를 화려하게 꾸미려 한다.

절대권력자였던 왕은 묘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인력을 동원했다. 뿐만 아니라 풍수를 이용해 권력의 당위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문화재관리국 학예연구관 정종수씨(44)는 《역사를 움직인 풍수이야기》(웅진출판)를 통해 왕을 비롯한 권력층이 풍수를 어떻게 이용했으며,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보여준다.

“왕릉은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손만대의 영화를 꿈꾸며 만든 왕릉엔 백성의 원성과 땅이 함께 묻혀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무덤은 그 말을 들려줍니다.”

그러나 왕릉은 풍수를 이용한 상징에 불과하다. 고려나 조선이 태동할 무렵엔 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풍수를 원용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도읍지를 정하는 일. 왕건은 마치 문단속을 잘해놓은 집과 같다하여 개성을 도읍으로 정했고, 이성계는 개성은 신하가 임금을 폐하는 땅이라 하여 한양으로 도읍을 정했다. 풍수도참설은 왕의 전용물이 아니었다. 지관의 한마디에 조정이 시끄러울 때도 있었다. 세종 때 한 지관이 경복궁이 명당자리가 아니라는 설을 내놓자 신하들은

물론 세종까지 나서 시시비비를 가릴 정도였다.

“지관의 한마디에 나라가 시끄러웠던 것을 보면 '정풍유착'의 심각한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일반인에게까지 깊이 침투해 모든 대소사를 의지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조선 중기를 넘어서면서 한집 건너 한사람이 지관 노릇을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만연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다산과 서거정 등 실학자는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풍수에 의한 해악이 만연해 있다. 그러나 정종수씨는 풍수는 잘만 원용하면 이로운 점이 많다고 주장한다.

“풍수는 자연친화적입니다. 강남 지역을 개발할 때 풍수를 원용했다면 지금처럼 자연 파괴적인 도시를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풍수를 원용해 배산임수형 집을 짓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풍수로 인한 역사적인 폐해를 역설적으로 이해하면 과학적인 모습으로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명될 수 없는 많은 풍수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거칠게 비판한다. 풍수와 묘지문화를 연구한 그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풍수와 화장의 이점을 역설하는 것에서도 풍수를 맹신하는 세대에 대한 경계심을 읽을 수 있다. 그는 민속문화와 관련된 저서도 펴낼 계획이다.

—오완진 기자

신문더미에서 복원한 서사적 글쓰기

《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 수용 양상》 펴낸 정선태씨

“개화기는 우리 삶의 원형을 간직한 시대입니다. 아직 가공되지 않은 자료들이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죠.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조약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실험되고 있어 자료해독에 어려움을 느낀 연구자들이 증도하차하고 맙니다. 개화기라는 눈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될까봐 발을 빼죠.”

100여년 전의 신문더미를 뒤적이면서 행복했노라고 털어놓는 정선태씨(36). 지난 3년여 동안 두문불출, 개화기 문학의 지형도를 다시 그린 《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 수용 양상》(소명출판)을 펴냈다. 지난해 2학기에 통과한 서울대 국문과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하다.

이 책은 《독립신문》·《매일신문》·《태국신문》·《황성신문》 등 1898년을 전후해 등장한 민족지의 논설 가운데 228편의 서사·문학적 글을 추출해 그 성격과 문학사적 위상을 고찰한다. 문학이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지 못한 미분화 상태에서 서사문학은 논설란을 빌려 명맥을 이어가면서 그 가능성을 실험했음을 실증했다.

“당시의 신문 논설란은 근대지향적 지식인들이 자신의 이념적 최대치를 펼칠 수 있는 역동적 공간이었어요. 자신들의 사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문답식·일화식 구성 등 서사적 글쓰기가 실험됐죠. 박지원·홍대용 등 18세기 비판적 지식인의 글쓰기가 신문체도로 변형된 것입니다.”

한일합방 직후 신문에서 논설란이 사라져간다. 이는 지식인의 물적 토대가 박탈당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서사적 논설이 소설로 편입됐는가 아니면 소멸해버렸는가 하는 문제에 이른다. 그는 이곳에 근대문학 탄생의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개화기 신문자료들은 아직도 정리가 제대로 안된 상태입니다. 글자가 문드러져 거의 암호해독 수준일 때도 많죠. 이 자료들을 정리해 개화기 연구의 원료로 공급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는 현재 개화기 연구의 초입에 들어섰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정리한 신문자료를 가공·재구성할 일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름쯤 《대한매일신보》와 《경향신문》에 산재한 서사적 글쓰기를 정리해 연구서를 낼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개화기의 풍속과 일상생활을 재구성하는 데 몰두할 생각이다.

“당시 신문기사나 광고를 뒤져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가득합니다. 예컨대 자식이 전동차에 치어 죽자 그 아버지가 전동차를 죽이겠다고 몽둥이를 들고 덤벼들었다는 얘기도 나오죠. 이런 생생한 사실을 당대의 문맥에 위치시켜 해석해내야 합니다. 문학·역사·언론·민속학 등 학제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화기의 총체적 일상을 복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쩌면 '개화기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성립될지도 모릅니다.”

—박천홍 기자

